

노 후보 life story

1. 약력

○ 1946. 8. 6. 경남 김해군 진영읍내에서 10리정도 떨어진 산골

가난한 농사군의 다섯남매중 막내로 출생.

○ 진영 대창국민학교, 진영중학교 졸업.

○ 1966년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 그해 11월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 합격.

○ 1968. 3월 육군 입대하여 최전방 휴전에서 중병으로 근무하고

1971. 1월 상병으로 제대.

○ 1975. 4. 20. 제 17회 사법시험 합격.

○ 1977. 9. 5. 부터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근무.

○ 1978. 5. 8.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

○ 1981. 소위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후 학생사건, 노동사건등의

변론을 맡아옴.

○ 1985. 5월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발기 및 상임위원회 역임.

1987. 3월 - 88. 2월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우리포레 나이의 사람들 모두가 그랬듯이 나의 어린시절도 무척이나 가난했다.
한학급에서 나 혼자만 필통을 사지못해 누나에게 몰려받은 헌 필통을 새 필통과
바꾸자고 옆자리 친구를 꼬이다가 급우들로 부터 망신을 당했던일. 크레용을 사지
못해 미술시간마다 꾸증을 들었던일. 사친회비를 못내어 한달에 한두번은 꼬박꼬박
집으로 쫓겨오던일. 고등학교 3년동안 한푼이라도 싼곳을 찾아 하숙, 자취, 가정교사,
회사숙직실등을 전전하던일.

지나고 생각하면 다 즐거운 일들이 당할때는 왜 그렇게도 괴롭던지.
그중에서도 고 3시절 늦은가를 어느날 잘곳이 없어 학교 교실에서 이틀을 잤는데
밤새껏 이를 악물고 얼마나 떨었던지 이튿날 온종일 이가 아파 밥도 못먹었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런 고생과 서름속에서 자라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를 해서 고생도
벗고 서름도 갚고 고생하는 사람도 도와주리라 거듭 다짐했다.

물론 순서는 나부터 먼저 잘되는 것이고 남을 돕는다는것은 그다음이었다.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나니 세상은 달라졌다. 돈 걱정 할일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굶실거리는 사람도 많고 쉽게 생각하면 정말 살맛나는 생활이었다.
출세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던 어린시절의 꿈은 잊어버렸다.

①
실상 변호사라는 직업은 가난하고 못배운 사람들에게는 없느니만 못한 것이었다.
돈없이는 변호사를 이용할 방법이 없고보니 변호사는 돈있는 사람편에 서서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양심의 갈등이 없는것은 아니었으나 우선 가까운 형제조카들을 돌보아야 하고 장차 노후를 위하여 부동산도 좀 사놓고 시골에 농장이나 별장도 하나쯤 가지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일 다보아 주다가는 내 화려한 꿈이 몽땅 깨질판이라 나는 눈 딱 감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변호사는 왜 돈있는 사람편만 드느냐고 몰을라 치면 세상에 있는것치고 돈있는 사람 편티 하게 안되어 있는것이 무엇 있느냐고 밀어부치고 이웃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무슨무슨 수석합격자가 나와서 장래 법관이 되어 돈없고 힘없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돕겠다거나 의사가 되어 돈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포부를 말하는것을 볼때마다 쓴웃음을 짓곤했다.

지금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어느 누구인듯 옛날에 그런 포부를 안가진 사람이 없었으련만 막상 되고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고 나 또한 그모양을 못벗고 있어 나오는 자조의 웃음이었으리라.

그러면서도 나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종사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방패로 삼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즐겨왔다.

○

그런데 81년의 소위 부림사건 재판을 맡고부터 나의 인생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대공분실에 끌려가 무려 57일이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못하고 그에게
그 어머니로 하여금 산성풀밭으로 영도다리 밑으로 자식을 찾아 미친듯이
해매개 했던 불효자식. 매를 얼마나 맛랐던지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발톱이 새까맣게 죽어버린 몸을 내보이면서도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변호사
마저도 정보기관의 첩자가 아닌가 눈치를 살피던 파리한 모습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슴은 분노로 끓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모진고통 속에서도 눈빛이 맑게 빛나던 청년들. 어느 한사람
예외없이 학교성적은 우수하고 부모님께서는 모범적이었던 성실한 청년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을 이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던 말인가. 수십일 동안을 밀실(바로 박종철군이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장소와 같이 생긴 방)에 가두어 놓고 차고 때리고 물먹여 만들어 놓은 조서
그대로라도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죄 될것이 없었다.
하물며 조서란 조서는 모두 조작된 것이고 보면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이었다.

죄가 있다면 그들은 이상에 불타고 있는 청년들이었고 그래서 남달리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것 뿐이었다.

그러나 현명하신 재판장은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3년씩, 5년씩, 7년씩
감옥에 보내버렸다. 같은 사건으로 따로 재판 받은 한사람은 무죄선고를

하였던 양심적인 판사는 그뒤 진주로 쫓겨갔다가 결국 옷을 벗고 말았다.

그사건 재판이 끝날때까지 나는 그 청년들을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성적도 우수하여 남보다 나은 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왜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조차 저버리고 자기앞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어리석은 일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대화를 나누어 가는동안 그들의 삶을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과 가족 부모형제 끼리끼리만 잘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온갖 불의와 부정을 애써 못본척 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학생사건, 노동사건등의 무료변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외에도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일을 맡아왔다.

그러는 동안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화려한 사회의 이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희생과 고통을 똑똑히 보게되었고 세월이 갈수록 그들의 아픔이 가슴에 닿아오면서 어린시절 나의 고통과 울분이 되살아났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까지 흘려 일을 해도 겨우 일에 풀칠하기가 고작이고 자식 대학공부도 조그마한 자기집 한채의 꿈도 가져 볼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 어디를 가도 사람대접 해주는곳 없는 천대꾸러기들. 그에 비하여 대낮에도 골프장

에 ...하고 그것도 힘들었다고 사우나

탕에 가서 몸풀고 저녁에도 수백만원어치씩 술을 마시면서 여자나 끼고 희희
난난하고 놀아도 가는 곳마다 대우받고 하루에 이자수입만 5,000만원이 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 2,000원만 훔쳐도 당장 구속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해먹고
도 외국이나 들락날락 하면서 그들먹거리고 사는 세상. 이것이 어찌 사람사는
세상인가.

이같은 불공평이 단지 사람이 잘나고 못나서 그런것이 아니라 돈많은
사람과 권력을 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빨아먹기 위하여 한통속이 되어
범과 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때문에 생긴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나 혼자
하는 무료변론 몇건이 아무소용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점차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독재권력을 무너뜨리고 정치가 민주화 되고 재벌의 횡포를 막고 경제
를 민주화 하기전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보았자 아무 소용
이 없고 좌절과 실망만 더 커질뿐이니 결국 독재정권을 몰리치는 일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료변론 정도야 돈 좀
덜 벌고 시간 좀 더 내면 되는 일이지만 독재정권에 맞서서 정치의 잘 잘못
을 비난하고 규탄하는 일은 언제 어디로 끌려가 병신이 될지, 언제 무슨 죄목
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끌려갈지 모르는 위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일뿐

꿈도 자식만은 외국
까지 유학을 보내 고등학교 밖에 못나온 우리 부부의 한을 풀어 보겠다는

희망도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었다.

82년부터 나는 하루하루 양심과 욕심 ^{사.이.이(?)} 갈등을 겪으면서 살았다.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요정이나 싸롱
등 고급술집에 발을 꿰고 좋아하던 요트타기도 그만두었다. 그때까지 술
먹고 놀고 친척 도와주고 하느라 모아놓은 재산이 없었으므로 악착같이 아끼
면서 돈을 모았다.

한편 사건의 수임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최대한 도덕적 기준을 지키려
하였고 조그만 약점이 될만한 일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는 하면서도 막상 무슨일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83년 감옥에 갔던
부림사건의 청년들이 출소하여서는 서서히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나에게도
함께 하자는 제의를 했다. 나는 이들에게 사무실을 내주기도 했고 여러가지
보조를 해주었다. 걸핏하면 경찰관들이 사무실 앞을 지키고 내밀히 뒷조사를
하는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도 망설임이 없는것은 아니었으나 그때 출소한 청년 한사람을
내가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채용했는데 정말 마음곱고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였다. 그러나 그는 옛날에 고문당한 골병이 남아 날이 굶은 날이면
신경통으로 잠근을 아기도 하였고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 일급받고 편하게 산다
싶은지 고민을 하는것을 보면서 결심을 굳히고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당시 나는 그의 고통을 볼때마다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 자식놈의 얼굴이
그의 얼굴에 겹쳐졌다. 이놈이 장차 대학에 갔을때 나는 무엇이랴 가르칠
것인가. 이 청년이 가는길을 걸으라고 할것인가. 아니면 모두 못분척 하고
높은자리에 편안히 앉아 돈이나 벌어 잘 살라고 할것인가.

양심이나 정의니 하기 쉽지만 차마 내사망하는 자식에게 어찌 이 청년과
같은 고통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것인가. 고민하던 끝에 지금 우리 애비
들이 나서서 자식들이 할 고생을 대신하여 그들에게는 어두운 세상도 그에따른
고통도 물려주지 않도록 해보자고 결심하였다.

85년 봄부터 부산에서는 종교인, 지식인들이 모여 부산 민주시민협의회를
만들고 독재에 대한 저항을 본격화 하였다. 나도 그 모임에 참여하였고
그이후 학원안정법 파동, 2.12 총선, 개헌헌판식, 권양 성고문사건, 박종철군 고문
치사사건, 4. 13 호헌반대, 6월항쟁에 이어지기까지 강연, 집회, 시위, 상담, 변론
등 열심히 싸웠다. 그동안 노동법률상담소를 만들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
들을 도와주려 노력도 했고 86. 9월부터는 사건수임을 중단하고 운동에 전념했다.

그러다가 87. 2월 7일 고 박종철군 추모회때에는 3일동안 구속되는 영장이

5만여 명을 구출하기도 했고 87. 9. 11. 8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가기도 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더니 87. 9월에는 마침내 대우조선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여일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끝내 11월에는 업무정지명령까지 받았다. 본시 사건수임을 중단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정지라 해도 먹고 사는것과는 별 관계없는 일이었으나 학생사건이나 노동사건의 변론에는 엄청난 타격이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한 시대의 획을 그은 6월 항쟁. 노태우의 6. 29 항복은 분명 우리 부산시민이 받아낸 것이었다

그 항쟁 기간동안 국민운동본부는 시민항쟁의 정신적 구심점이었고 나는 그 중심에서 야전사령관 노릇을 했다. 아내 몰래 호주머니를 몽땅 털어 유인물을 만들고 확성기를 사주고 밤을 세우가며 청년들과 내일의 작전을 의논하고 밤 2-3시 모두들 수배된 몸이라 잠자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를 청년들과 약수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린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내가 이 자랑스러운 역사의 순간에 함께 있었다는 자랑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박해를 보상하고도 남는 것이다.

특히 6.18. 저녁 그날의 부산시민은 정말 자랑스러운 시민이었다.

○

그날은 국민운동본부도 재야도 운동권도 학생도 모두 부산시민속에 녹아버렸다.

그날 나는 시민의 대열속에 파묻혀 눈을 줄줄 흘리면서 청년들의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심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동무 자유로울때
우리의 다리 저절로 덩실
해방의 거리로 달려 가누나
아아 우리의 승리
죽어간 동지의 뜨거운 눈물
아아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기.
어머님 해맑은 웃음의 그날위해.

그동안 악독한 독재자들의 손에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 가까이는
박종철군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는가를 말해야 할때가 온것 같다.
애석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야당의 분열 때문에 독재권력에게 패배하였다.
돈과 관권 보도기관을 총동원하여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마치 그 자신이 처음
부터 민주주의자 인양 떠벌리고 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바른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천장이 감옥으로 가고 버텨야 죽을때 무엇을 하던 사람들인가.

우리는 계속 그들을 감시하고 부정과 비리와 싸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 쉽게 노태우를 믿고있다.

야당은 눈앞의 욕심에 눈이 멀어 총선을 앞두고 통합에 실패함으로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들에게 국회의석 3분의 2를 넘겨주어 버릴지도 모른다. 안그래도 못할것이 없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또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

그런데 재야는 재야대로 분열되어 힘이 없다.

다시 재야를 재건하여 싸우는것도 필요할 것이나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고 설사 그들이 모아서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총선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마침 통일민주당에서 함께 싸워보자는 제의가 있었다. 어차피 나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나를 죄인이라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했다. 소위 6.29 선언 이전에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였던것이 주된 범죄사실이었다. 6월중에 구속되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 주고난 한참뒤에 새삼 나만 기소를 한 것이다.

○ 과연 그들이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6월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함께 싸웠던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고 싶다.

어떤사람들은 지금까지의 나의 주장이 국회의원 한자리를 노린것이냐
생각하는듯 합니다. 나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
다만 나는 지난 연말연시에도 달력이나 명함은 커녕 카드 한장 누구에게
보낸 일이 없습니다. 단 몇사람의 명단도 지역구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다. 설사 국회의원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
선거자금을 모으고 사조직을 관리하거나 달력 만들어 보내는 대신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를 내던지는 투쟁을 통하여 턱전을 쌓아 올려가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당당한 자세라 생각한다.

나의 정치적 소견

1. 전제 : 설사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 할지라도 일개 야당의 초선

의원의 정치적 소견은 당에 건의하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
할수는 있는 정도일뿐 당장 현실정치에 반영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 여러분이 사람을 선택하는데는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민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심판하고 처단하는것만이 사회
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일이다.

해방이후 이나라에는 일제때 왜놈들에게 아부하여 호의호식하던 사람
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영역의 세력을 모두 장악하여 민중을 괴롭
히는 일을 하여왔다.

일제하에서 일본놈에게 적극적으로 아부하였거나 적당히 타협하여 호의
호식하던 지주계급이 일제가 물러가자 재빨리 미국놈들과 결탁하여 정권을
장악하였고 일제하에서 독립투사들을 체포 고문하던 자들이 경찰권을 장악
하였습니다.

그결과 목숨을 걸고 항일운동을 해왔던 애국자들은 미군과 경찰의
냉대와 탄압아래 몰락하여 버렸고 친일지주들은 일본놈들이 우리 3천만 동포의

고혈을 차내어 거머쥐고있던 , 이나라 재산의 8할이나 되는 거대한
재산을 끼리끼리 먹어 나누어 가졌고 그이후에는 정상모리배로 변신하여
미국을 등에 업고 권력과 재력을 한손에 몰아쥐고 원조물자의 착복, 온갖
부정과 특혜로 민중의 동을 쳐먹고 살아왔다.

이처럼 잘못된 역사는 부정과 부패 한탕주의가 판을 치는 비뚤어진
사회를 만들었고 항일독립운동에 목숨마져 내걸었던 애국자들이 일제고등계
경찰앞잡이들의 손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하는 통한을 남겼으며 우리
민중에게 일본군국주의 군대의 장교를 대통령으로 모시게 하는 치욕을
안겨주었다.

교육과 문화는 어떤가. 우리가 배운 교과서는 대부분이 일제하에서
학병과
정신대 동원을 독려하는 글을 쓰고 연설을 하고 다니던 친일문학인들의
글로 채워져 있어 우리는 그들의 글을 외우고 그들을 존경하며 살았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그들은 조금도 참회함이 없어 오늘도
예술원이니 문화원이니 하는 단체의 요직을 깔고앉아 우리의 민족정기를
더럽히고 오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거꾸로 된 역사를 그대로 둔채 어찌 정의로운 사회
를 기대할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를 불안에 떨게하고 내일への 희망을 어둡게 하는 온갖

범죄의 정도에 따라 가혹한 형을 부과하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럽고 아니꼬운 일없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천대 받는 일 없고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는 정의로운 사회는 잘못된 역사를 단절하고 거꾸로 된 가치관을 바로 잡는 일이다. 그러자면 5.16 쿠데타 이후 총칼로 권력을 잡고 재벌들과 결탁하여 온갖 부정과 부패를 자행함으로써 사회정의와 민중의 희망을 짓밟아 버린 범죄자들의 정권을 쫓아내고 그들의 죄악상을 날남히 국민 앞에 공개하고 엄격한 법의 심판을 통하여 감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고 일정기간 근신하여야 할 사람은 일정기간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몰수하여야 합니다.

이런 일은 국민이 하여야 합니다. 지금 노태우는 새마을 비리를 파헤치냄으로써 마치 제5공화국의 비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지금 권력을 쥐고있는 노태우와 그 일당. 각료와 국회의원 후보자의 과거를 봅시다. 그들은 과거 전두환과 온갖 부정부패를 함께 저질렀거나 도와준 공범들입니다.

공범이 공범을 어찌 심판합니까.

○

노태우와 그일당이 지금 하고있는 일은 산적이나 갱당의 부두목이 두목을 밀어낸 다음 조직안에 남아있는 두목의 세력을 뿌리 뽑는 권력투쟁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나자 전두환과 노태우는 과거의 비리를 척결한다하여 이후락, 김종필, 김종규등을 잡아넣고 재산을 빼앗고는 정의사회를 만든다고 떠벌렸읍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부정과 비리를 척결한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자행했고 과거에 부정축재 재산으로 환수한 재산까지 부정하게 요리 하였읍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과거 박정희의 심복부하였읍니다. 권력이 부하에게 넘겨졌는데도 심판이 안되었는데 권력이 공범에게 넘어간 마당에 심판이 될 리가 없읍니다. 노태우와 그 일당. 민정당이 과거를 청산한다는 말은 정말 사람 웃기는 일입니다.

심판은 국민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3. 재벌을 해체하고 중소기업과 노동조합을 육성해야 합니다.

재벌은 정부로 부터 온갖 특혜를 받고 은행돈을 마음대로 끌어다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시장을 독점하여 물건값을 마음대로 올려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고 중소하청기업의 기름을 짜서 엄청난 돈을 모아서는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고 금융지원 중단, 거래중단 등으로 중소기업을 잡아먹어 이제는 나라 전체가 그들손에 돌아납니다. 재벌기업으로부터 기름을 짜이다 보니

시달려야 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재벌들은 유통구조 합리화네 뭐네하며 대형백화점, 도매센타를 세워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잘살기 위하여는 재벌을 해체하고 대기업은 주식을 종업원이나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중소기업을 살려주어 노동자들, 도시빈민들도 함께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재벌해체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학교수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예컨대 부실기업을 재벌들에게 특혜용자와 함께 넘겨주지 말고 주식을 그 기업 노동자들과 일반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경영은 그기업의 경영자와 관리자, 노동자들로 구성된 기업재생 추진위원회 같은데 넘겨주는 방법으로 해보는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방법이 없거나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재벌과 결탁하여 단물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4. 재벌과 부정축재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토지를 빼앗아서 무주택 서민과 중소기업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재벌들은 은행돈을 몽땅 빌려서 부정축재자들은 부정하게 번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사모으니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고 집값이 올라가니 땅세 집세가 올라가고 집세가 올라가니 공장을 빌려서 쓰는 사람은 노임을 깎거나 물건값을 올려야 수지를 맞출수 있고 구멍가게 주인은 콩나물 분량을 줄여야 본전 밑자지 않습니다.

그결과 우리 서민들은 수입은 얇아지고 물가는 올라가 살기가 어려워 집니다.

땅 많은 사람들은 땅값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재산이 늘고 세가 오르면 수입이 붙어 나는데 이 돈은 모두 서민들의 월급봉투와 밥상에서 도둑질 한 것입니다.

불과 몇몇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땅을 나누어 활용하면, 집없는 사람들도 작으나나 내집을 마련하여 전세집 구하러 다닐때마다 아이가 멋이냐고 질문을 받거나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인집 아이들한테 기죽어 지내는 속상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토지를 나누는 방법으로는 토지소유 상한제를 만들고 토지면적에 따른 누진세를 신설하고 토지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게하여 토지투기를 막아 나가는 한편 토지개발공사가 재벌이나 부동산 투기업자들과 결탁하여 땅장사나 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토지를 장기연부로 사서 서민들에게 장기연부로 나누어 주거나 세를 싸게하여 빌려 주는일을 하면 됩니다.

5. 불로소득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만히 앉아 놀아도 하루에 이자 수입만 5,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있고 한달에 정부미 푸대에 한푸대나 되는 돈을 집세로 거두어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증권값이 올라 증권에 2-300만원 투자해 놓은 사람이 돈 몇만원을 벌었다고 희희낙락 할때, 어떤 재벌은 하루에 60억원의 재산이 불어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 불로소득 또한 모두 서민들의 월급봉투와 반찬값을 가로챈 것입니다. 재벌을 해체하고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가지면 이런 불로소득은 자연 없어지겠지만 그와 병행하여 금리인하, 집세인화, 불로소득에 무거운 세금부과로 재벌해체와 토지분배를 촉진해가야 합니다.

6.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여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민족통일을 촉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군사작전 지휘권이 미국의 손에 있습니다. 세계에 하나 뿐인 수치입니다. 미국의 형편이 쪼들리면서 동북아시아의 방위를 일본이 분담하면서 일본이 한국의 방위를 떠맡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함께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을사보호조약을 다시 하자는 말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세계에서 핵무기가 무허의노고오 한국 본이됩니다.

핵지뢰는 너무 위험하여 어느나라도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그밖에도 한국에는 많은 핵 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핵 무기는 우리정부의 승낙도 없이 미국이 마음대로 갖다 놓은 것이고 사용할때도 우리 정부의 승낙없이 미국놈들 마음대로 쓸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1983년 미국의 국방장관 와인버거라는 사람이 의회에 낸 국방 보고서를 보면 중동에서 미국이 소련과 전쟁이 붙거나 하면 소련 극동군이 중동으로 이동 못하도록 한반도의 북반부 즉 평양에 핵 공격을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물어 보지도 않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로 미국놈 마음대로 평양에 핵 공격을 하면 우리 서울은 어찌 됩니까.

우리 모두 죽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것은 미국놈과 소련놈이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한 짓입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120만의 막강한 군대. 국제무대에서 남북간의 경쟁을 하는동안 쌓여진 엄청난 외교적 능력. 6천만 인구에 세계적인 경제규모. 나라가 부강해짐은 남북간의 군비경쟁에 드는 비용의 절감.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으로 우리 국민의 살림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남북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독재자들도 입으로는 통일, 통일 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주권의 회복도 통일도 독재자들이 무너진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7. 나는 과격분자도 사회혼란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보고 과격하다거나 사회혼란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거나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전은 중상모략입니다.

미안한 마음이야 있지만 본시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수있는 변호사라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회혼란이나 공산주의를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독재와 부정과 부패를 싫어할 뿐입니다.

내가 권양 성고문 사건 규탄 집회에 참가하고 고 박종철군 추모집회를
주도하고 고 이태춘군의 장례행렬에 앞장섰던탓에 구속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딸이 골목에서 놈팡이들에게 희롱을 당하는것을 보고도 사람
들이 모두 외면하고 가버린다면 여러분은 그사람들이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경우야 경찰이라도 말려줄 수가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있는 정부와 경찰이 우리의 아들 딸들을 희롱하고 고문하여 죽일

때는 누가 말려줍니까.

국민의 안전사고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못본척 하는 사람이 비겁한 사람입니까.

저는 또 고 이석규군이 죽었을때 옥포 태우조선에 갔다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오리걸음으로 오면 최루탄을 쏘지 않겠다고 약속
하여 노동자들을 유인하여 포위해 놓고는 쓸 필요도 없는 최루탄을 마구
쏘아 사람을 죽였습니다. 법적으로 보아 본명한 살인행위였습니다.

나는 부검에 입회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현장에 갔다가 그 사실을 알고
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보상과 정부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방해 하였다는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노동쟁의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벌금형을 받았으나 제3자가 노동자를 도와주면 안된다는 법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악법입니다.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기업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을때 노동자의 정당
한 권리를 도와주는것이 왜 죄가 됩니까. 변호사는 살인죄인도 간첩도 다
도와 주어야 하는데 노동자를 도와주면 왜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없는사람 도와주면 다 빨갱이입니까.

8. 선거에 임하는 나의 자세

가. 나는 독재와 싸우기 위하여 몸을 던지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차례 김영삼 전 총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던 끝에
출마를 승낙 하였으므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선거구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잘사는 사람도 너무 못사는 사람도
없는 고른 동네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민정당 후보중에서 가장 나쁜사람, 가장 강한사람이
있는 곳에서 싸우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현역의원 전원이 민정당의 강자를 피하지
말고 정면대결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만일 민주당에서 나를 허삼수나 유흥수 이외의 사람과 싸우라고
한다면 아마 영입인사에게 너무 힘든 싸움을 시키는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배려일 것입니다.

나. 나는 돈안쓰는 선거를 한번 해볼랍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는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그탓에 물가가 올라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습니까.

정부에서는 작년 7-8월의 임금인상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부러기 사쓰는 상품한가 등이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10퍼센트 올라도 물가는 1퍼센트 밖에 안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업의 손이익이 많아서 기업가들이 이익을 조금만 적게보면
물가는 하나도 오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돈받고 선거운동을 하며 다니는 시민여러분!

돈이나 선물을 받은 시민여러분. 우선 먹기쉬운 궂값이 달다고 기쁜기
종을지 모르나 선거 끝나고 물가가 오르면 한달도 못가서 본전은 달아나고
그 다음부터는 적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돈을 물쓰듯이 쓰는 사람은 여러분의 생활비를 축내고
집값 땅값 마구 올려 서민들 내집마련의 꿈을 뺏아가는 도둑놈들입니다.

입으로는 없는사람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외치면서 선거부터 없는 사람
들 손해보이는 짓을 저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선거운동 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에서 돈을 쓰는것이 나쁜줄 알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장차 권력의 압력과 온갖 유혹을 어떻게 이겨 나가겠습니까.

나는 사리사욕에 따라 원칙도 신념도 지조도 없이 권력에 아부하고

이리 붙었다 적지 붙었다 하는 정치인. 당선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선거과정에서 부터 법으로 정한 한도이상은 돈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선거에서 큰돈을 안 들고 당선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노동자나 중산층이 잘 살수 있는 정치가 가능해 집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직접세를 올리면 돈 많은 재벌이 불리한 반면 서민에게 유리하고, 간접세를 올리면 재벌에게 유리하고 서민에게 불리해 집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재벌해체를 위한 법. 토지독점을 막는법들이 통과 되면 서민은 살게되고 재벌은 쫓딱 망하는 것처럼 부자와 서민. 재벌과 중소기업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이나 그사람들을 얻어 국회에 많이가면 부자에게 유리한 법만 만들게 되고 서민이나 중산층이 국회에 많이가면 서민에게 좋은 법이 만들어 지게 되는데 돈 안쓰고는 국회의원이 될 방법이 없다면 국회는 몽땅 부자나 부자의 앞잡이들의 판이 되고 말 것이니 국회에서는 없는 사람 죽이는 법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돈 안쓰고도 국회에 갈수있는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전통은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힘을 합하여 한번 해봅시다.

민정당 공권자의 67 퍼센트가 사장이나 부동산 재벌들이랍니다.

이번 선거를 돈으로 해 보겠다는 뜻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돈많은 사람은 자기 돈이 많으니 도둑질을 안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들, 부동산 재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을 보통 밝혀서 부자가 됩니까. 수판에 얼마나 밝은 사람들입니까. 본전 몇배를 안 뽑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으로 밀어부쳐서 세상을 돈판, 먹자판으로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군인출신, 관리출신도 돈을 수십억씩 쓴다는데 그 많은 돈 어디서 냈느냐고 우리한테 물어봅시다. 도둑놈들.

라. 민정당 운동원 여러분. 찬물먹고 속 차립시다.

시민여러분. 민정당 운동원. 공무원 여러분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볼때마다 손내밀고 악수 청하고 허리굽혀 절하고 정말 사람 태접 받는 기분 나지요.

그런데 정말 후보자 그 사람들이 평소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까.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 밥한끼 먹어도 호텔레스토랑에서

먹고 모임도 으리으리한 호텔 무슨 룸에서 하고 골프채 흔들며 목에 힘주

장있게 언제 우리 돈업고 할일도 할일도 할일도 놀아주었습니까.

거룩하신 의원님 선거때만 되면 내려와서 급실급실 하다가 올라버리고
나면 지역구에 남은 지구당 부위원장입네, 무슨 간부네 하는 졸개들은 명함쪽통
들고 다니면서 경찰서로 관공서로 다니면서 윗사람들이나 만나 청탁이나 하고
말단 공무원들한테 거드름이나 피우고 다녔지 우리 서민들 언제 사람대접 해
주었습니까.

찬물 먹고 속차립시다.

물론 저도 국회의원이 앞앞이 다니며 주민들 아껴주고 놀아주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 몸에 힘깨나 쓰는 사람들 하고만 놀지말고
서민들이 참가할수 있는 모임을 자주 열어 그들의 고충과 희망을 듣고 함께
토론하여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해보려 합니다.

매월 1회 내지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시민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청년 학생 노동자들과 밤새워 돼지갈비 소주집에서
밤을 세우기도 하고 집으로 찾아온 노동자들과 밤 2-3시가 넘도록 땀냄새, 발냄새
참아가며 고충을 듣고 상담하기를 보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부산시민의 공직복 지킵시다.

유권자 여러분은 두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79년 10월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정권을 무너지게 한 것은 전두환의 말입니다. 민정당의

후보들을 3명이나 쫓아내어 부산어른의 칭호를 받았으며 철통같은 전경의 방어망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6. 29 항복을 받아낸 저 6. 18 투쟁의 주역들. 민주의 선봉대
입니다.

이제 저 마피아의 잔당들은 다시 엄청난 돈으로 여러분의 뜻을 사려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을 얼마나 깔보고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나하나쯤 하거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은 부산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 통일민주당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것은 사죄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부산 시민여러분이 애정을 가지고 키워
주시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기는 커녕 영영 몰락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야당이
몰락한 후 도둑놈들이 국회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국회. 무서울것 없고
못할것이 없는 민정당만의 독무대를 상상해 봅시다.

이제 지가 잘난 국회의원 말고 시민이 만들어준 국회의원 하나 만들어
봅시다.

돈이 없어서 인색비가 걱정입니다.

돈까지 주어가며 물건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성금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본같은 것은 시정들에게 돈을 주고서만 할 목이 정하는 국회의원은 아니다.

꼭 그래야 한다면 차마미 떨어지겠음

지역사업 공약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가뭇 민정당이 되어야 지역발전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에 고등법원을 유치하는것은 수십년 동안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공화당 민정당을 거치면서 온갖 예를 딱 써도 안디더니 85년 2. 12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가 3명이나 나가 떨어지고 나서 어라 뜨거라 하고 당장 고등법원을

만들어 주고 그위에 낙동 하구공탄도 만들어 준답니다.

그리고 민정당 후보들은 떨어쳐도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 다음에
또 해볼라고 지역구 사업에 열심히 땀것이고 야당의원이 힘을 보태면 지역발전은
더 잘되겠지요.

그러나 나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것은 국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공명정대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말과 같다고 봅니다.

서로 자기 고향만 잘되게 하겠다고 나서 싸우면 나라꼴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또 지역사업이 반드시 지역주민 전부에게 덕이되는것만은 아닙니다.

부산상공인들은 낙동강 하구공탄 건설을 열심히 추진하고 민정당도 이에 맞장구

치고 있으나 낙동강 하구공탄을 상공인들이 하자는 대로하면 상공인들은 옛날

공장 자리팔아 싹땅으로 옮겨 엄청난 이득을 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휴식공간

만 잃고 공해구덩이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까 모릅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언론과 전문가들을 움직여 숙원사업이다 하니 우리도
덩달아 숙원사업인가 하지만 그게 그런게 아닙니다.